

▶1면에서 이어짐

① 정체성 논란… 컴퓨터공학과와 유사학과?

SW융합학과는 기존 학과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교육 하되 예술·디자인, 기계공학, 산업경영공학, 인문계열학과와의 연계를 통한 ‘열린 학과’를 지향한다. 하지만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SW융합학과 신설로 인한 여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SW융합학과가 컴퓨터공학과와 전공과목을 공유하고 있는데다가 타 학과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균관대학에선 2016학년도까지 1학년 학생을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전전컴)로 일괄 모집해 성적을 기준으로 2학년년부터 컴퓨터공학과 또는 소프트웨어학과로 분배했다. 두 학과는 커리큘럼 및 교수진이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소프트웨어학과에 비해 컴퓨터공학과와의 경우 장학금과 취업보장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왔다. 결국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불만이 일어 2017학년도부터 컴퓨터공학과는 소프트웨어학과로 통합됐다.

SW융합학과와 교육과정 작성 및 기획을 도맡고 있는 이성원(컴퓨터공학) 교수는 “SW융합학과는 일종의 특별학과가 아니다”며 “애초 기업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성균관대학의 SW학과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학과체제로는 학문의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가기 어렵다”며 “우리학교만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차별 문제에 대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SW융합학과와 과목을 듣거나 다전공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제2의 컴퓨터공학과가 되지 않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SW융합학과는 다른 단과대학과의 연계를 기본으로 한다. 이 교수는 “각 학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 공간문제: 전정대 강의실실 부족

SW융합학과가 일단 설립되고 나면 전자정보대(전정대)에 위치하게 된다. 현재 전정대의 강의실 사용률도 높은 편인 데다가 실습실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 공간문제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6학년도 2학기 전정대 소속 학생 수는 1,404명(재학생 기준)이며, 강의실 사용률은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전정대를 제외한 국제캠 소속 단과대(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외국어대학, 국제대학, 체육대학)의 평균 강의실 사용률인 65.6%에 비해 높은 수준이

다. 2016학년도 2학기에 실습실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래밍 강의는 30개가 개설됐으며, 수강생은 중복을 포함해 총 976명에 달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5곳(B01, B05, B07, B09, B11호) 뿐이다.

2017년에는 SW융합학과 전공과목 2과목(이론 1과목, 실습 1과목)이 추가될 예정으로, 2018년까지 공간 부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년차인 2019년부터는 실습실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 측에서도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성원 교수는 “학기별로 한 과목이 개설되는 것이므로 현재 여건에서도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다만 “2018년부터 타 학과에서도 다전공 및 부전공을 대규모로 지원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타 단과대학의 강의실을 공유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외적으로 기업의 지원이 확정되면 단과대 신설을 통한 공간 문제 해결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에 공지된 사항에 따르면 SW융합학과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연계한 R&D센터 건립 ▲중소기업 협회와 연계한 산학협력관 건립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에 대한 제안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로 조만간 지원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중소기업협회의 경우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다.

단과대 설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의남(컴퓨터공학) 교수는 “향후 R&D 센터 건립을 통해 기업체들의 연구공간, 학생들의 강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며 “강의 및 실험실에 대한 여건은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③ 재원확보 문제: … 산업체와의 연계방안

SW융합학과를 통해 우리학교는 2차례 고배를 마신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과 함께 내년으로 예정된 ‘LINC+ 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우리학교는 각각 약 120억, 40억여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2012년에 시행된 ‘LINC 사업’에는 우리학교가 ‘전체정원 중 이공계열 인원이 20% 이상’ 돼야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SW융합학과를 통해 정원이 조정되면 이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재원을 위해 학교 측에서 급하게 학과를 신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성원 교수는 “SW융합학과와 관련된 논의는 프라임사업보다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며 “외부 재원이 없이도 학교신설은



▲ 지난 9월 27일 국제캠퍼스 전자정보대학에서 SW융합학과 관련한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 설명회가 열렸다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기업의 지원을 전제로 학교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최대한 외부에서의 지원을 얻고자 발품을 팔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의 연계는 취업을 제고와 산학협력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님들이 주변 회사들과 소통하면서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에 유리한 모델을 만들어달라는 등의 피드백을 받고 있다”며 “무조건 기업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 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④ 단과대학 설립… 무제한 추진?

학교 측에선 컴퓨터공학과와 SW융합학과만의 단과대학을 만들고, 건물을 증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허의남 교수는 “전정대 강의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년 동안은 약간 불편하겠지만 추후 강의실 부족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현재 산업체와 협의를 통해 컴퓨터공학-SW융합학과와 새 단과대 시공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정대 행정실 박은규 계장은 “학교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컴퓨터공학-SW융합학과와 단과대 신설 여부에 관한 소통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차 소통회의는 컴퓨터공학과 소속 교원과 재학생이 참여해 11월 넷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업선정의 성공을 가졌해 대책 없이 학과를 신설하는 이런 상황이 프라임사업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나타날까 불안감이 존재한다. 컴퓨터공학과 한진원(컴퓨터공학 2013) 학생회장은 “사업 선정에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고 강의실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프라임 사업에 떨어지고 1년도 안 된 상태에 무리하게 새 단과대 설립을 추진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⑤ 소통문제: … 구성원에게 정보제공

SW융합학과는 구체적인 기획단계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은 정보를 사전에 접하지 못해 당혹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SW융합학과 설명회 개최 이전까지

학생뿐 아니라 타 단과대 교수에 대해서도 SW와 관련한 진척사항 및 회의 일정이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교수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이후 공개적인 회의를 진행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있다면 무조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 역시 “공과대학 발전위원회를 조직해 신설단과대학에 대한 공학계열 교수님들과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물어 신설단과대 설립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현재 의견 조율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SW융합학과 교육과정 최종안이 수시 모집이 이뤄진 후에 나온다는 사실은 문제다. 이는 충분한 계획·검토과정을 거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성원 교수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에 지원하던 2년 전부터 방향성을 고민해왔고, 신설이 결정된 후로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 및 수정을 해온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 1차 학생 신청기간 : 2016.11.17.(목) 09:00 ~ 12.13.(화) 18:00

- ※ 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마감일 제외)
- ※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할 것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 원활한 신청을 위한 권역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기간 내 권역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나, 가급적 권역별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할 것을 장려함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 외
2016.11.17.(목) ~ 12.08.(목)	2016.11.22.(화) ~ 12.13.(화)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6. 11. 17.(목) 09:00 ~ 12. 16.(금) 18:00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제10기 한국 대학생 박물관·미술관 문화시민봉사단 모집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서는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최/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제10기 한국 대학생 박물관·미술관 문화시민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본 박물관을 비롯한 전국의 7개 박물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박물관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http://www.museum.or.kr/)

● 신청자격 : 박물관·미술관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및 휴학생

● 참여인원 : 000명

● 봉사기간 : 2017년 1월 ~ 2월 말(세부일정은 관과 봉사자 간 조율)

● 참여혜택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최소 5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함)
- 박물관·미술관관련 교육(기본소양교육) 12월 23일(금) 예정
 - ※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별도 공지

● 모집기간 : 11월 3주 ~ 12월 3주 (자세한 일정은 추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 접수방법

Step1. 문화체육자원봉사홈페이지(http://csv.culture.go.kr) 통해 접수 (봉사 완료 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수가입 요망)

회원가입 → 통합검색 창에 한국박물관협회 “제10기 한국 대학생 박물관·미술관 문화시민봉사단 모집” 제목의 글 검색 → 신청하기 클릭

Step2. 서류 제출(kormuseum@hanmail.net으로 제출)

- ①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신청서(한국박물관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 ② 재학/휴학 증명서

● 서류전형/면접 : 12월 3주 ~ 12월 31일(토)/ 해당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진행하며, 봉사희망 박물관·미술관 면접 결과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배치 예정

● 문의 : 02-795-0959 / 김보현 (한국박물관협회 담당자)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2016-2 온라인 성인지 향상 이벤트

성평등상담실에서는 경희 재학생들의 성 인지 향상을 위해 온라인 향상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대상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
기간 : 2016. 11. 14(월) ~ 2016.12.11 (일)

● 참여방법

1. 경희대학교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 접속한다.
(http://web.khu.ac.kr/~happyou/)

2. 홈페이지 첫 화면의 특별예배 온라인 교육 (1~4)을 모두 수강한다.

3.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특별예배 퀴즈 양식 다운로드 후 답안을 작성한다.

4. 성평등상담실 이메일로 제출한다. (happyou@khu.ac.kr)

● 다 맞은 사람에게 한하여 추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상품을 드립니다.

1등 셀리 보조배터리 (4명)

2등 플스킨 x 라인 다이어리 (6명)

3등 브라운 모음 텀블러 (4명) or 브라운 32GB USB (4명)

4등 초코샌드 (2명) or 5단 미니 우산 (3명)

5등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30명)

● 결과발표 : 2016.12.13 (화) 14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문자